



전주마당창극 '아나옌다, 배갈라라!' 특별공연기간

보고! 먹고! 놀자!

전주문화재단 한옥마을 상설공연단의 전주마당창극 '아나옌다, 배갈라라!' 가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특별 공연 기간을 갖는다.

이는 여름방학과 휴가를 맞아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여행자들을 위한 것으로, 이 기간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던 공연을 수요일~토요일 연장 진행한다. 이와 함께 공연관람객을 대상으로 최장거리 관객 찾기, 추임새 즉석 경연 등의 이벤트를 실시해 쌍화당 선불세트, 콩나물 국밥 식사권, 뷔페 식사권, 기념 티셔츠, 출연진 사인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북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뿐만 아니라 여름방학 특별공연 기간을 기점으로 전주마당창극과 함께하는 전주·임실 시티투어 도 진행한다. 이는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다양한 관광 명소를 알리고자 기획된 것으로 전주마당창극 관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시티투어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한옥마을 르윈호텔 앞에서 시작해 임실 치즈레마파크, 섬진강 구담마을, 진메마을, 김용택 시문학관, 섬진강변 물문화관 등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열린다.

공연 관람료는 3만원이며, 티켓 1장으로 '전주문화체험'과 '잔치음식체험', '공연 관람' 등 3가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연예매 및 문의와 시티투어 신청은 전주문화재단 한옥마을 상설공연단(063-283-0223)으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휴가철 맞아 수~토요일 연장 진행
최장거리 관객 찾기 등 이벤트 실시
한옥마을 관광객 위한 시티투어도



“혼자서 장거리 여행가는건 평범한 생활처럼 평범한 것”

장애인 여성앵커 홍서운씨, 여행지
'유럽,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발간

“휠체어를 탄 채 26인치 여행가방을 끌고 혼자 유럽 여행을 떠났다. 스위스에서 패러글라이딩도 해냈다. 용감해! 잘했어, 홍서운! 장하다!”

2013년 한 방송국에 입사하면서 국내 첫 장애인 여성 앵커로 이름을 알린 홍서운(29) 아나운서가 유럽 7개국 25개 도시로 여행을 다녀온 뒤 쓴 '유럽,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생각비행) 책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저자는 10살 때 불의의 사고로 다쳐 20년간 소실 속 비련의 주인공이었다고 회고한다. 학교와 집, 병원이 외출의 전부였던 때도 있었던 그녀가 어느 날 '어떻게든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스위스행 비행기 표를 끊고 유럽 여행을 시작한다.

삶의 판도를 뒤엎든 곳으로 소개한 스위스에서의 일화가 많다. 취리히로 가는 비행기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 여행을 떠난 저자를 향해 “대단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평범하게 비행기를 타고 유럽 여행을 하고 싶었던 게 전부였는데 자꾸만 “대단하다”고 하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장애인 혼자서 장거리 여행을 하는 일이 대단해야만 하는 걸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생활처럼 평범한 일이 될 수는 없는 걸까?”

하지만 그녀가 경험한 스위스 여행은 한국과는 달리 일상 그 자체였다. 휠체어로 버스와 기차를 타는 일이 어렵지 않았고, 산을 오르는 케이블카도 쉽게 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스위스에서 용기를 내 패러글라이딩에도 도전했다.

“숨을 크게 한 번 쉬고 나서 마법의 주문을 걸었다.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낙하산 줄을 힘차게 잡아당겼다. 날개가 되어 줄 하얀색 낙하산이 공기를 가득 품고 크게 펼쳐졌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멈추는 듯한 환희를 느꼈다”는 소감이 나와 있다.

이렇게 저자는 새장에 갇혀 살던 새가 새장을 벗어나 하늘을 나는 기분을 전하고 있다. 자신이 경험한 도전과 자유를 많은 장애인들과 나누고 싶어 이 책을 집필했다고 썼다. /김민근 기자

레코드 판매점 운영 두고 충돌

현대카드 · 중소 음반판매점간 갈등 '봉합'

현대카드, 중고 음반 취급 않고
카드 회원 할인 혜택 줄이기로

레코드 판매점 운영을 두고 충돌한 현대카드와 중소 음반판매점과의 갈등이 봉합됐다.

현대카드의 중소 음반 판매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닐 & 플라스틱(Vinyl & Plastic)'의 운영 정책을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비닐&플라스틱은 각종 음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구매할 수 있는 체험형 매장이자,

현대카드는 중소 음반판매점과의 상생을 위해 중고 음반을 취급하지 않고, 평상시 현대카드 회원 할인 혜택을 10% 수준으로 줄이기로 재확인했다.

또 해외에서 직접 음반을 수입하지 않고, 국내 출시 또는 수입되는 음반 수량 중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음반을 취급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매장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온라인 판매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음반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에도 나선다.

특히 인디밴드와 인기 뮤지션들의 비닐 제작을 지원한다. 개별 음반 판매점의

홍보 리플릿 제작을 지원하고, 전국의 음반판매점 소개 지도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전국음반소매상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 상생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국내 음반문화를 활성화하고, 비닐 & 플라스틱이 음반을 통해 음악을 새롭게 체험하는 놀이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국음반소매상연합회 김지은 회장은 “음반 문화 확대라는 공통의 희망과 목적을 위해 서로 대화하며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모항 밤바다 작은 음악회 성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안지회(지회장 김중문)가 주관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모항 밤바다 작은 음악회(비스킹 공연)'가 지난달 30일 모항해수욕장 소나무 특설무대에서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자녀부터 부모까지 온 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들로 채워져 모항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모항 밤바다의 낭만과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했다.

매년 26만여 명이 찾는 모항해수욕장은 아담하면서도 노을이 일품인 해수욕장으로 갯벌진흙놀이, 조개 캐기 등 갯벌체험을 할 수 있어 가족 단위 피서객에게 인기가 많다.

한편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이 부안을 방문한 피서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오는 6일과 13일에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엔씨소프트 '팡야 모바일'

내년 중국에 선보여

엔씨소프트가 인기 골퍼게임 '팡야 모바일'을 중국에 서비스한다.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바이두게임즈 '에너지 나이트' 행사에서 팡야 모바일의 중국 서비스를 소개했다고 1일 밝혔다. 엔씨소프트와 바이두게임즈는 내년 중국에 팡야 모바일을 선보일 예정이다.

팡야 모바일은 엔씨소프트의 자회사 엔트리브소프트가 개발한 골퍼 게임 '팡야'의 모바일 버전으로 새로운 캐릭터와 다양한 게임 모드가 특징이다. /김민근 기자

한콘진, 8일까지 '이달의 우수게임' 모집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오는 8일까지 2016년 제3차 '이달의 우수게임'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의 우수게임은 ▲온라인·PC·아케이드·콘솔·보드게임 등 일반게임 ▲모바일·SNS 등 오픈마켓게임 ▲기능성게임 포함 착한게임 ▲인디게임 등 4개 부문에서 진행된다. 기획·디자인·음악·작품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통합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참여를 원하는 게임 제작사나 배급사는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 공모신청서와 기획문서, 게임이미지 등이 포함된 첨부

자료를 등기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콘솔·아케이드·보드게임은 시연용 제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참가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출시 12개월 이내의 국내 창작·개발 게임이다. 이전에 이달의 우수게임을 수상했거나 접수한 작품은 제한된다. 단 착한게임과 인디게임 부문은 출시일과 재음모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수상작은 한콘진이 주관하는 게임 전시회와 투자유치 설명회(IR) 참가를 비롯해 게임 홍보영상 제작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민근 기자

특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8월 2일>

<p>▷쥐띠 48년생: 어려움이 발생하나 잘 해결되니 지나친 걱정은 하지 마라. 60년생: 정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72년생: 외부적인 일이 잘 풀린다. 84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신속히 진행하라.</p>	<p>▷소띠 49년생: 지금은 앞으로 나아갈 때가 아닌 물러날 때. 61년생: 자신이 투자한 만큼만 돌려받는 운이니 욕심은 금물이다. 73년생: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우지 마라. 85년생: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라.</p>	<p>▷호랑이띠 50년생: 외부적인 일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운이다. 지중하며 때를 기다려라. 62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다. 74년생: 인덕이 있거나 사람으로 인해 기쁜 일이 있는 운. 86년생: 경쟁자로 인해 힘든 하루를 보내게 될 듯.</p>	<p>▷토끼띠 51년생: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다면 먼저 나서서 수습하라.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63년생: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라. 75년생: 그동안 해왔던 일을 고수하는 것이 좋다. 87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p>
<p>▷용띠 52년생: 감정으로 인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주의하라. 64년생: 자신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때이다. 76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자주 막히는 때. 88년생: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운이나 시비가 따른다.</p>	<p>▷뱀띠 53년생: 겉은 화려한 듯 하나 내부는 힘들다. 65년생: 외부적으로 손재수가 떠르니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한 운이다. 77년생: 자신보다 강한 상대로 인해 스트레스가 예상된다. 89년생: 일이 막히고 힘들 때에는 위사랍의 조언을 구하라.</p>	<p>▷말띠 54년생: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낄만한 일이 발생한다. 66년생: 타인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 78년생: 새로운 사람보다는 기존의 사람에게 더욱 신경 써라. 90년생: 언행에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된다.</p>	<p>▷양띠 55년생: 매사에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때. 67년생: 주변에서 자신을 간섭하거나 답답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주의하라. 79년생: 좋은 일하고 구설에 휘말리니 주의하라. 91년생: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만 진행하라.</p>
<p>▷원숭이띠 56년생: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68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천운이 따른다. 80년생: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운. 92년생: 놀랄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운이다.</p>	<p>▷닭띠 57년생: 예상하고 있던 것이 빗나가거나 사람으로 인해 실망할 일이 생긴다. 69년생: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조심할 것. 81년생: 타인으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생길때 속에 담아두지 마라. 93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좀 더 계획을 세우고 때를 기다려라.</p>	<p>▷개띠 46년생: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봐라. 58년생: 외부적인 일은 이득이 많으나 내부적인 일은 좋지 못하다. 70년생: 이랬사람에게 신경 써야 하는 때. 82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p>	<p>▷돼지띠 47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고 오히려 손해만 가져올 뿐. 59년생: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 71년생: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독단이 될 수 있다. 83년생: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의 대가가 따를 것이다.</p>